

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의한 하지 절단 후 임상적 분석과 결과

Clinical Analysis and Results after Amputations of Lower Extremities due to DM Foot

서울보훈병원, 고려대학교 의과대학*

강규복 · 이상준 · 김학준*

❖ 서론

당뇨병성 족부 질환에 의한 하지 절단 후 임상적 결과 및 그 분석을 통해 하지 절단 환자들의 경과 및 예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.

❖ 대상 및 방법

1991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2년 동안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진단받고 하지 절단 수술을 시행하였고 추시가 가능하였던 8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79명, 여자가 6명이었고, 이들의 병력을 통해 술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적 수술 예를 조사하였으며, 추가 수술은 동일 부위 재수술, 근위부 절단 수술, 반대측 하지 절단 수술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.

❖ 결과

최초 절단 수술 당시 환자의 연령은 평균 64.3세이었다. 우측에 발생한 경우가 40예, 좌측에 발생한 경우가 45예이었다. 최초 하지 절단 술(85예) 후 동측 하지 절단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20예(23.5%)이었고 반대측 하지 절단술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는 8예(9.4%)이었다. 최초 하퇴 절단술(39예) 후 동측 동일 부위 재수술을 한 경우는 8예(20.5%), 하퇴 절단술 후 동측 대퇴 절단으로 진행한 경우는 2예(5.1%)이었다. 대퇴 절단술(11예) 후 동측 동일부위 재수술을 한 경우는 1예(9%)이었고 대퇴 절단술 후 동측 고관절 이단술로 진행한 경우는 1예(5.1%)이었다. 족부 절단술(35예) 후 동측 동일부위 재수술을 한 경우는 5예(14.3%)이었고, 족부 절단술 후 동측 하퇴 절단으로 진행한 경우는 4예(11.4%)이었다. 하지 절단술 후 반대측 하지 절단을 시행한 경우는 8예(9.3%)이었다. 환자 문진을 토대로 당뇨 발병으로부터 최초 절단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4.5년이었으며 추가적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수술로부터의 기간은 평균 5.3개월이었으며 최초 수술로부터 반대측 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8.7개월이었다. 대상자들 중 당뇨병과 함께 동맥경화를 동반한 환자는 7명(8.2%)이었고 대상자들 중 사망자는 19명(22%)이었으며 이 중 1년 내 사망은 7명(8.2%), 1년 이후 2년 내, 3년 내 사망은 각 2명(2.4%), 3년 이후 5년 내 사망은 4명(4.7%), 5년 이내 사망은 15명(17.6%), 5년 이상 생존자는 4명(4.7%)이었으며, 최초 수술로부터 사망까지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.

❖ 결론

본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당뇨병성 족부 질환으로 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후 동측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23.5%이었다. 당뇨 발병으로부터 최초 절단수술까지의 기간은 평균 14.5년이었으며, 추가적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수술로부터의 기간은 평균 5.3개월이었으며 최초 수술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. 의료진은 당뇨병성 족부질환에서의 하지 절단술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, 수술 전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환의 경과 및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색인단어 | 당뇨병성 족부, 하지 절단술, 합병증